

김정은 체제의 ‘지식경제형 강국’의 의미와 전망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최경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한반도의 남과 북은 20세기 중반 뒤늦게 19세기의 밀린 숙제인 부국강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의 노력은 한반도의 남북에 각기 다른 결과를 선물했다. 북한은 근대국가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강성대국’이라는 미완의 숙제 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근대국가 건설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을 키우고 있다.

21세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식력, 환경력 그리고 문화력이 새로운 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식 무대는 특히 중요하다. 19세기의 산업혁명기 경제력의 비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다면, 21세기의 정보기술혁명은 지식력의 중요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대신에 첨단정보기술이 중요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정보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부상했다. 지식적으로는 세계 지식질서의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사이버 자아와 사이버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력의 기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22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¹⁾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북한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주목했던 신년 공동사설은 김정일 시대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군 최고사령관에 등극하며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으나 김정은은 김정일이 활용했던 ‘유훈통치’라는 대내통치방편을 한번 더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이 1998년에 국가비전으로 내세웠던 ‘강성대국’²⁾ 건설목표 중 ‘경제강국’을 대체 계승하는 김정은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공동사설은 “새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라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정치(사상)강국’이 실현되고 김정일의 핵보유로 ‘군사강국’이 완성되었으므로 김정은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식경제 강국’을 완성하는 데 매진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대기획] 19C서 배우는 21C 국난 해법⑥ 100년 앞을 내다보며: 열린 ‘지식주도형’ 사회 만들자,” 『주간조선』, 1762호, 2003년 7월 17일 참조.
- 2) 북한은 ‘강성대국’대신 ‘강성부흥’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이 5번 언급돼, 지난해의 19회에 비해 급감했다. 그 대신 ‘강성부흥 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 ‘강성번영’, ‘강성국가’ 등을 사용했다. 이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올해 ‘강성대국’ 원년 선포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용어와 표현의 다양화로 국가목표 자체를 추상화·하향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강성대국’을 대체한 ‘강성국가’는 지난해 4월 이래로 북한 언론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동사설은 지식경제제시대의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목표 제시와 결맞지 않게 오히려 여전히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며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길 좋은 경공업 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인 식의주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김정은 체제 개막 초반의 형국은 여전히 19세기의 고전적 ‘위정척사론’과 ‘부국강병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김정은 체제의 ‘지식경제형 강국’의 배경을 고찰, ‘선대 수령들’의 유훈통치 차원에서 분석하고 향후 김정은 체제의 주요 정책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김정은 체제의 ‘지식경제형 강국’ 제시 배경

1. 현 시대 규정: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지식경제 또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는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국제기구나 국가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르나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 또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앎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해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면서 작게는 기업, 크게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지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기반경제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즉 21세기는 지적 자본, 곧 지식의 생산·획득·전파·이용·축적 등 지식기반이 튼튼한 국가가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지금도 경쟁적으로 지식기반을 축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는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 생산노하우, 고객 서비스, 현장 지식, 컴퓨터·인터넷·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마케팅 방법 등 실용적인 지식과 기초과학 등 모든 학문적 지식이 포함된다.³⁾

북한도 역시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현시대는 노동력이나 자원보다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이 사회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또한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과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과 적

3)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를 사회 전체의 흐름으로 파악해 사회 자체를 지식기반사회로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식기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 위키디아 <http://www.doopedia.co.kr>; 송관호, 『사이버세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9); 피터 드러커 지음, 이재규 옮김, 『미래경영』 (서울: 청림출판, 2002) 참조.

4) “지식경제는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제이다. 지난 시기의 전통적인 공업부문들을 산업의 기둥으로 하던 경제와는 달리 고도기술산업을 기둥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다. 지식경제의 기본은 지식산업이다. 지식산업은 지식의 생산과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된 경제분야들을 포괄한다. 지식의 생산과 교환, 분배, 소비는 사회경제분야에서 독립적인 부문을 이루며 지식산업은 여러 경제부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립적인 산업을 형성한다.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은 세 단계, 즉 농업경제(노동력경제)와 공업경제(자원경제), 지식경제(지능경제) 단계와 같은 경제발전단계를 거치어왔다...지식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기초로 하고 무형자산의 투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이다. 다음으로 정보화에 의거하고 정보고속도로를 기조시설로 하는 경제이다. 또한 고도기술산업과 봉사업을 기둥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일뿐 아니라 학습형의 경제이다.” 강창진, “지식경제의 특징,” 『로동신문』, 2011년 6월 19일.

극적인 활용에 의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지식경제시대는 경제강국 건설에 비상이 높은 요구성을 제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첨단을 돌파하는 것을 지식경제시대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시하였다.⁵⁾

“세계에 얼마 안되는 첨단기술 강국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위력과 함께 대고조시대를 상징하는 주체철과 비날론, 우리 식 CNC화의 기적도 이제는 어제일로 되었다. 새 세기 첨단과학기술을 핵으로 하는 새로운 공업화의 위업이 실현 되고있다. 우리 식 CNC기술이 모든 경제부문과 생산공정들에 구현되고 지금은 무인화실현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다.⁶⁾

2. 통치이념(슬로건): 최첨단돌파사상과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론

북한은 김정일이 2010년에 첨단돌파의 구호를 제시한데 이어 지난해 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다시 한번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노력하라는 과업을 제시⁷⁾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최첨단돌파사상’과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론’은 김정일 체제 출범시 제시되었던 ‘과학중시사상’과 ‘강성대국 건설론’에 필적하는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 또는 통치구호(슬로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령후계자론>⁸⁾에 의거해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후계자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의 과학기술분야의 업적 찬양 등의 우상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98년 8월 31일 이른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 발사 당시에는 북한 언론매체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CNC공작기계’에 대한 선전이다.

“다계단운반로케트에 의하여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된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계산도대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력사적, 과학기술적사명을 수행한 《광명성 1》호가 우리의 첨단과학기술의 성공작이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아직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제작은 CNC공작기계가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CNC가 있어 인공지구위성과 그 운반수단의 제작이 가능했다는것이다. 특히 다계단운반로케트에 들어가는 부분품들은 전부 CNC로 가공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것들이다. 그것도 일반표준형의 CNC기계가 아니라 고성능급의 다축 CNC기계로써만 가공할수 있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순수 우주과학기구가든가 혹은 보다 더 복잡한 지구감시위성일수도 있다고까지 예언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더라도 이 위성을 자체로 제작하는데 대단한 기계기술이 도입되었다는것은 묻지 않고도 알수 있는 문제인것이다. 우리의 CNC는 이렇게 《광명성 1》호와 뜻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 고도기술의 집합체인 첫 인공지구위성과 함께 조선의 첨단기술은 상상의 큰 발자국을 내짚게 되었던 것이다. 5천년민족사의 새로운 궤도를 놓은 《광명성 1》호밀에는 주체의 CNC기술이 별처럼 빛나고있다. 인공지구위성뿐이 아니었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21세기 사회주의경제

의 기초에는 주체의 CNC기술이 별무리와도 같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⁹⁾

김정일은 체제 출범 후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정하고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내용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중시’를 ‘사상중시’와 ‘총대중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북한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과학혁명’으로 정의했다.

김정일이 과학중시사상을 강조한 것은 과학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강국’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과학중시를 김정일의 사상이라고 선전했다.¹⁰⁾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에 대한 강조는 1998년 8월 ‘광명성 1호’ 발사를 계기로 빈번해졌다. 과학중시사상은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가장 취약하며 실리추구에 초점을 맞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¹¹⁾

특히 김정일은 ‘광명성 1호’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과학기술과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체제생존전략 중 가장 성공한 것은 과학기술중시노선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김정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곧 과학기술강국이며, 경제강국 건설과 군사강국 건설도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강성대국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했던 것과¹²⁾ 같이 김정은은 **지식경제강국의 CNC화**를 ‘자립적 민족경제를 지식경제시대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도’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3. 경제제건전략: ‘함남의 불길’과 ‘CNC’

김정일은 1998년 1월 자강도 강계트랙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시 자력갱생에 입각한 강행군 사례를 ‘강계정신’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으로 구체화시켰다. 이후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를 계기로 ‘성강의 봉화’(1998년)라는 새로운 경제 슬로건을 제시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락원의 봉화’(2000년), ‘라남의 봉화’(2001년) 등의 경제 슬로건을 잇달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노력경쟁운동이 김일성 시대보다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극심한 경제난과 관련하여 실리 추구가 강조되면서 대중적 노력경쟁운동이 퇴조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2000~2009년의 기간 중 사실상 전통적인 노력동원이나 선동이 크게 약화된 것은 북한의 실리 추구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전통적인 노력경쟁운동을 발인 것이 2009년 4월경부터 시작된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50일 전투’와 그 뒤를 이은 ‘100일 전투’였다. 이는 김정은 권력승계작업을 위해 그리고 집단주의 복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치경제적 대중운동이었다.¹³⁾ 특히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첫 관문인 ‘150일 전투’를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독려했다. 노

5) “ : 다시한번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비약하자,” 『로동신문』, 2011년 3월 25일.

6) “정론: 김정일동지의 소원,” 『로동신문』, 2011년 2월 10일.

7) “사설: 다시한번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비약하자,” 『로동신문』, 2011년 3월 25일.

8) “수령과 그 후계자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려면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의 주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계속 공고발전되어야 한다.” 『광명백과사전 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p. 227.

9) 송미란, “장군님과 CNC (2) 러명을 위하여,” 『로동신문』, 2011년 3월 5일.

10)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노설, 2000년 7월 4일자.

11) 배성인, “김정일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담론과 담론의 정치,”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p. 52.

12) 변상정,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을 참조.

13) 홍성국, “‘경제강국’ 아닌 ‘경제난국’ 된다,” 『북한』, 2012년 1월호 참조.

동신문 2009년 5월 18일자 사설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인민군대가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참예한 반제대결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면 오늘날의 강성대국 건설 대전에서는 노동계급이 영웅적인 선봉대, 용감한 돌격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¹⁴⁾며 노동계급의 노력경쟁운동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홍남비료 가스화 1계열공정’ 조업을 계기로 ‘함남의 불길’이라는 경제 슬로건을 내걸었고,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에서 개발한 CNC기술의 전 산업으로의 확산’이라는 선전구호가 가동되었다. 이러한 노력경쟁운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사회주의 체제의 집단주의 복원을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시대는 지식의 활용범위를 대단히 넓히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종합적리용을 전제로 하는 오늘 최첨단기술이 책상우에 머물러 있을새가 없으며 그자체가 경제활동에 즉시적으로 참가하는 시대이다. 지식경제시대는 에디슨과 같은 개인이 중대한 발명을 하고 그것이 과학기술발전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던 이전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당 분야의 1번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단이 있어야 하며 집단의 위력에 의해서만 성과를 낼수 있게 되어있다.”¹⁵⁾

그러나 집단주의 복원의 노력경쟁운동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였을지라도 예전과 같이 조직적·집단적이지 못하고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과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노력경쟁운동을 통한 조직생활과 집단주의를 복원·유지하려고 간간함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수정예의 20~30대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최첨단기술 개발의 중차대한 과업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과학기술강국의 당당한 주인이 되겠다는 포부와 열정, 적들의 과학기술봉쇄를 주체의 과학기술로 짓몽개버리겠다는 만만한 투지와 배짱으로 최첨단돌파전의 전열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며 생산과 건설에 최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남들이 못한 것, 세계에 없는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더욱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20대, 30대에 세계적인 박사,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포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와 기술혁신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¹⁶⁾

북한 지도부는 CNC공작기계 제작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주민들에게 경제제건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고취시키면서 대내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초 고성능 CNC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녹색건축형의 CNC 공작기계공장이 들어섰다고¹⁷⁾ 선전한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은 CNC 전문가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를 ‘책임일꾼’으로, 1980년대 작은 로봇트를 만들어 전시회에 출품했던 기술자를 공

장으로 하여 CNC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우리가 건설하려는 경제강국은 지식경제형 경제강국인것 만큼 온 나라의 CNC화는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사업이라는것”과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경제강국건설이 중요하다”는것,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사업은 온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는것이라는것, 인민경제의 CNC화를 실현하여야 적은 자원, 적은 로력, 적은 에네르기로 보다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다는것, 자원과 기술을 바꾸는 과정이 CNC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것“ 등 김정일의 지시들은 경제전략의 기초를 세워주는 지침이었다는 것이다.¹⁸⁾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기술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벨트라인에 들어선 여러 디지털화된 로봇과 설비들의 내장 컴퓨터에 입력수치만 바꾸면 굳이 생산라인을 아예 뜯어고치지 않고서도 신제품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생산방식이다. 북한이 언급한 CNC기술로는 ‘련하기계’의 CNC선반과 대안중기계융합기업소에서 만든 CNC화된 수력터빈날개가공반 등이 있는데 이중 김정일이 특별히 칭찬했던 설비는 ‘련하기계’가 개발한 CNC 선반이었다.¹⁹⁾

이와 같이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은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CNC기술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북한의 CNC기술이 알려진 것은 로동신문 2009년 8월 11일자에 ‘첨단을 돌파하라’는 제목의 ‘정론’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핵·미사일 부품 등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군수산업공장으로 알려진 연하기계종합공장은 대북경제체제 대상이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CNC기술은 21세기 기계공업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항공우주공학, 자동차공학, 조선공학 등에 필요한 제어계측기술이며 세계적인 명품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세계 10대 공작기계기업들에서 독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III. 김정은 체제의 지식경제형강국과 유훈통치

1. ‘CNC정치’ 계승

북한은 지난해 발간한 『장군님과 CNC』라는 책에서 김정일이 온 나라의 CNC화를 구상하고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최첨단돌파전으로 이끌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 CNC는 단순한 영어자모만이 아니었다. 광고를 위한 문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경제시대 조선의 새 모습을 담고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CNC는 이미 최첨단 돌파전의 강력한 무기로 되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조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조선의 미래를 틀어쥐고 계시는 김정일장군의 정치방향, 정치축은 과연 무엇인가. 김정일정치의 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CNC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를 통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적의 종자를 틀어쥐시었으며 CNC라는 말과 함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

14) “대고조의 복소리를 높이 우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제끼자,” 『로동신문』, 2009년 5월 18일.

15) 송미란, “장군님과 CNC (3),” 『로동신문』, 2011년 3월 6일.

16) “사설: 청년들은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오늘의 대고조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로동신문』, 2011년 2월 28일.

17) “정론: 온 세계에 앞서나가기,” 『로동신문』, 2011년 1월 7일.

18) 송미란, “장군님과 CNC (2),” 『로동신문』, 2011년 3월 5일.

19) 2010년 김정일이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주었던 과업은 11축복합가공중심반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11축복합가공중심반은 CNC공작기계 본체를 가공하는 ‘어미기계’이다. 로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회천련하기계종합공장이 도달한 어미기계의 현재 공정은 설계를 완전한 데 이어 부분품가공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조립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로동신문』, 2011년 10월 30일.

시키는 지름길을 열어나가고 계시는 것이다.”²⁰⁾

이 책에서 표현된 ‘지식경제시대 조선의 새 모습’은 기존 시대와 구분하는 의미로, ‘주체 시대’는 김일성 시대, ‘선군시대’는 김정일 시대로 본다면, ‘새로운 지식경제시대’는 김정은 시대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정일에 의해 시작된 CNC 최첨단돌파전이 향하고 있는 목표, 미래의 방향과 정치의 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CNC는 그것들의 상징이라고 답한다. 이는 CNC와 최첨단돌파사상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바, ‘선대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도록 후계자의 역할로 규정된 것이 곧 ‘CNC화와 첨단돌파사상’인 것이다.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한 연하기계공장의 CNC 기술 개발과 전 산업에의 CNC 도입은 ‘함남의 불길’과 함께 북한 사회 전체에 CNC화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CNC화와 최첨단돌파사상 강조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김정은의 통치수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기계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이께서 CNC화를 결심하신 것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구상에 따른 것이라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²¹⁾

201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4돌 경축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합동공연 ‘10월 음악회’는 출연진들의 파격적인 의상 등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남북한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연 중에 CNC기술이 북한 첨단기술혁신의 상징이라는 내용의 노래인 ‘돌파하라 첨단율’도 포함되었다. 북한은 온 나라의 CNC화는 지식경제시대를 불러오는 귀중한 불씨가 되었으며, 경제강국 건설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정일이 총대정치, 음악정치 이후 CNC를 강력한 정치수단으로 삼았고 어느 나라 역사에도 CNC를 정치와 결합시켜 본 정치가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우리 장군님이 CNC화를 통하여 이룩하신 새로운 승리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CNC라는 말이 단순한 기계기술의 범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의 돌파전을 추동하는 혁명의 언어로 전화되었다.”²²⁾

이러한 노력은 <수령후계자론>에 따라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김정일의 강성대국론과 CNC를 연계시키려는 사후적·인위적인 노력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업적으로 우상화해 왔던 ‘CNC화’를 통한 주민들의 사상적 단결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도출을 윤희통치의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김정은의 ‘CNC정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

2000년대 초 북한 공작기계연합회사 산하의 회천공작기계공장, 만경대공작기계공장과 함

계 대표적인 공작기계 생산업체인 구성공작기계공장 기술력은 북한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북한은 2001년 공장기업소별 기술개건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 기술개발이 한창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은 1980년대 중반 금속공작기계부문 기술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1988년에는 NC공작기계를 생산해내는 성과를 일궈냈으며 1991년부터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명 ‘구성104공장’으로 불리는 NC공작기계공장을 건설했다.

2001년 초에는 CNC장치가 부착된 공작기계를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해 계열생산(흐름식으로 생산하는 방식)에 도입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현지지도 당시 구성공작기계공장이 선보였던 첨단 공작기계로는 ‘CNC구성-10호’, ‘구성125-160형’, ‘구성125-160-3형’ 등을 꼽을 수 있다. ‘CNC 구성-10호’는 기존의 만능선반 ‘구성-10호’에 컴퓨터수치제어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새 세기에 상응한 현대적 컴퓨터장치를 개발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개발됐다. 2001년 4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홍성남 내각총리는 보고를 통해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을 ‘자동화의 본보기 공장’으로 조성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해 나갈 것²³⁾이라고 밝혔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에는 CNC 성과와 관련해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이 크게 부각되었다. 노동신문 12월 21일자에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기사가 게재되었고, 금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최첨단 돌파전의 선봉에서 내달리고 있는’ 공장이며 이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생일에 앞서 보도된 노동신문 1월 7일자 정론 ‘온 세계에 앞서 나가리’에서는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만을 대상으로 ‘CNC화의 선두 주자로서의 모범’임을 선전하고 있다.²⁴⁾

특이한 것은 2010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 보도에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회천발전소 건설장 참관 기사가 모든 면을 차지했다. 현지지도 사진만 75장이며, 김정은 중심의 사진이 여섯 장에 이르는 경이로운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형태는 북한 언론매체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편집이라 할 수 있다.²⁵⁾ 회천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성장의 상징물이 되고 있으며, 이른바 ‘강성대국’의 초입에서 상징화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⁶⁾

이와 같이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을 북한의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CNC기술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부각한 것은 후계자 김정은의 구상인 것으로 관측된다.²⁷⁾

23) “첨단 기계공업 기술개발에 나선 북한,” 『연합뉴스』, 2001년 4월 17일.

24) 2011년 12월 13일 노동신문에 사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첨단돌파전의 본보기를 CNC공작기계의 어머니공장인 련하기계에서 마련하시고 기계공업을 앞장에 내세우신 의의는 참으로 크다. 기계제작공업은 현대산업의 기둥이다. 우리의 기계제작 공업이 CNC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지식산업의 굳건한 기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기관의 발명이 기계제산업 시대의 산업혁명을 추동하였다면 CNC공작기계가 지식경제시대의 산업혁명을 강력히 추동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에 따라 만드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자랑인 CNC공작기계의 탄생으로 우리 경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더 높이, 더 빨리 비약 할 수 있게 되었다. 련하기계 개발자들이 단 몇 년 사이에 CNC기술의 패권을 쥐고 CNC공작기계를 마음 먹은 대로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지식산업을 개척한 것은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실 “최첨단돌파전으로 더 높이 비약하자,” 『로동신문』, 2012년 12월 13일.

25) 지난해 노동신문 8월 29일자는 이례적으로 12면 중면 발행되었고, 10면에 걸쳐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사진으로 채워졌다. 진회관은 노동신문의 이러한 편집형태가 당 선전선동사업에서의 일정한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김정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6) 진회관, “‘외교’김정일, ‘군사대치’는 김정은,” 『시사저널』, 1145호, 2011년 9월 28일.

27) “김일성군사종합대학시절의 10대에 군사원로들도 무색케 하는 명장의 자질을 완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 등 나라의 위력을 최강으로 다지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전두지휘하시어

20) , “장군님과 CNC (17),” 『로동신문』, 2011년 3월 23일.

21) 송미란, “장군님과 CNC (2),” 『로동신문』, 2011년 3월 5일.

22) 송미란, “장군님과 CNC (1),” 『로동신문』, 2011년 3월 3일.

북한은 김정일이 최첨단 돌파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제 그 결실이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전하고 있다. 즉, 2010년 주요 현지도 대상인 남포유리병공장과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경우 그 핵심설비와 CNC화 등이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광대한 작업장들에서는 3축, 4축, 5축의 각종 표준형의 CNC공작기계의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고성능CNC공작기계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제작한데 이어 지금은 더 높은 단계인 11축복합가공중심반을 제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²⁸⁾

북한은 경제제건을 위해 무기제조산업에서 발전시킨 CNC기술 성과를 민수산업부문에 전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연하기계 등 기계제작부문이 선두가 되어 금속, 화학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경공업, 식료품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반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19세기의 산업혁명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자원이 적으면 땅속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뒤떨어진 나라로 된다. 한그루 나무가 썩어 석탄 한덩이로 되기까지는 수백년이 걸리지만 석탄 한덩이를 태워 쓰기는 순간이다. 천덩이로 한kW의 전기가 아니라 한덩이로 천kW의 전기를 얻으려는 것이 지식경제시대인 것이다. 집약된 지식은 하나에서 백,천을 창조해낸다.”²⁹⁾

국가가 노동력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동원·이용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집단주의체제를 비롯한 사회질서 유지에 사활적인 문제이다. 북한은 CNC기술의 민수산업부문 적용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시간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 산업혁명에로의 단변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노동자원)은 군사작전에서 어떤 전투를 조직하기에 앞서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역량배치를 치밀하게 하여야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원리와 같다. 나라의 전반적인 로력배치 상태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축소할 것은 대담하게 축소하여야 로력의 량비와 불균형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장비 수준과 경영활동에서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화, 정보화의 실현으로 생산실천에서 노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극력 줄이며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는 것이 현 시기 경제발전의 주요호름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로력 자원의 리용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³⁰⁾

이와 같이 북한은 산업의 CNC화를 통해 절감한 노동력과 물자 등의 노력자원을 주민들

간담을 서늘케 하시켰다.” 『정론: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로동신문』, 2012년 1월 28일.

28) “경제건설의 대양양기 마련한 영도.” 『조선일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은 CNC전문가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를 CNC기계공업을 맡아보는 ‘책임일군’으로, 1980년대 작은 로봇을 만들어 전시회에 출품했던 기술자를 공장장으로 내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CNC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김정일이 연하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부여했던 과업은 11축복합가공중심반에 관한 것이었다. 11축복합가공중심반은 CNC공작기계본체를 가공하는 ‘어미기계’이다. 노동신문 2010년 10월 30일자에 따르면 회천연하기계종합공장이 도달한 어미기계의 현재 공정은 설계를 완성한 데 이어 부분품가공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조립에 들어간 상태이다. 『로동신문』, 2010년 10월 30일.

29) “정론: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발을 더 높이 들자.” 『로동신문』, 2011년 11월 10일.

30) “로력자원의 효과적 리용.” 『로동신문』, 2011년 11월 11일.

의 생활품 생산으로 돌리고 집단주의체제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김정일·김정은의 의도와는 달리 투자에 비해 노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집단주의 복원도 순조롭지 않은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³¹⁾

IV. 지식경제시대 김정은 체제 전망

1. 핵·미사일 국방공업 강화와 무기수출산업 육성

김정은 체제 역시 김정일의 ‘전략 부문의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국방공업과 무기수출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의 CNC화 전략으로 일정 정도 경제제건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³²⁾ 나머지 비전략 부문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제한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장마당을 통한 생존을 목인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2008년 3.1%에서 2009년 -0.9%, 2010년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계획기능의 작동이 멈춘 북한의 경제동향에 비추어 볼 때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정책으로 외부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민수경제부문 계획영역의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장마당과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 등 계획영역의 생산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은이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³³⁾ 북한 고위 당국자가 경제개혁을 언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인 1996년 2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말해 개혁개방을 일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정은은 경제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 그러나 양형섭의 발언이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라기보다는 금년 남한의 경권교체를 목표로 한 대남 교란용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김정은의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식경제형 강국’ 전략의 성공 여부는 북한 당국의 경제회생의지 변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북한 당국의 경제회생의지 변수 외의 능력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체제위협을 무릅쓰고 과감한 경제개혁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는 근대화된 발전적 리더십이 있는지에 북한 경제회생전략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³⁵⁾

31) 송미란, “장군님과 CNC (13),” 『로동신문』, 2011년 3월 18일.

32) 제임스 클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월 31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무기시스템 수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통해 핵물질,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시 핵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김정은에 대해 “북한에서 28세의 독재자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저장고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는 깊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조선일보』, 2012년 2월 2일.

33) 미국 AP통신 평양지국과의 인터뷰 내용, 2012년 1월 16일.

34) 고유환, “김정은 경제개혁의 조건,” 『한국일보』, 2012년 2월 2일. 북한은 지난해 3월 국장급 주요경제부서 간부 12명을 미국에 파견해 15박 16일 동안 ‘자본주의 속성과의’를 받게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김일성종합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북한 대학교수 6명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지식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해 국제경영과 국제경제, 재정, 무역분야 등 4개 코스를 연수했다고 한다.

35) 변상정, 앞의 책, pp. 323-327 참조.

2. 사회주의 계획경제 회귀 노력 및 대외관계 개선 노력

북한은 선전용 성격의 평양시 아파트와 유경호텔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물자 확보를 위한 증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함남의 불길’이라는 새로운 노력동원을 통해 전력·화학·광업 등 기간산업 부문의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생일인 2.16 광명성절과 김일성 100주년 생일인 4.15 태양절의 행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의 공관원과 상사원들에게 물자 상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방모델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하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대북 국제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을 통해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에 필요한 서방의 선진과학기술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리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 출범시의 일정 기간의 쇄국정책기를 거친 후에는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환경 여건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미·북대화 진전 및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증가 그리고 한국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등으로 2010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금년 신년 공동사설의 대외관계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난해 김정일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을 강조해 올해 북·중, 북·러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북한은 대외시장 확대에서 개별적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무역거래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외무역거래를 한두 개 나라에 치우치는 현상을 철저히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³⁶⁾ 따라서 북한은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와의 선린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대외시장 확대를 통한 외화조달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파악된다.

3. 핵·미사일 및 CNC 선전을 통한 통일전선전술 지속

북한은 김정일의 영결식이 열린 2011년 12월 28일 ‘핵개발’을 김정일이 남긴 최고의 유산으로 소개했다.³⁷⁾ 또한 북한은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의 혁명유산’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인구지구위성(장거리 미사일)의 제작·발사와 핵보유국의 존엄, 지식경제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다. 이는 결국 남한에는 없고 북한만 갖고 있다는 것으로,³⁸⁾ 세 가지 모두 CNC 성과에 대한 북한의 선전과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김정일의 통치술로건이었던 ‘강성대국 건설론’의 군사강국, 경제강국, 사상강국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이를 2012년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를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노동신문 정론 “철단을 돌파하라”에서 ‘런하기계’의 CNC설비 생산과 보급을 “조선이 철단의 령마루에 올라선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쾌한 신호”, “인공지구위성을 연이어 쏘 올린 것과 같은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공포한 일성(一聲)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 실현’과 김정일의 ‘조국통일 강성국가’이다. 28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한 근대국가로의 변모가 아니라 ‘선대 수령들’이 집착했던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 달성과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체제경쟁에서의 우위’로 분석된다. 따라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성능 CNC기술과 같은 ‘최첨단돌파’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들을 향한 통일전선전술의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우리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를 거쳐 지식경제시대, 디지털경제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과 노동이 통합되고, 지식이 생산과 부의 창출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김정일 체제 출범 후 등장한 ‘정보산업시대’에서의 ‘단번도약’에서 지난해부터는 ‘지식경제시대’의 ‘최첨단돌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식이 아니라 상식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3대 권력세습을 실현했다.

현재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생시에 이미 김정은이 권력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사실, 김정은의 강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 권력승계 경험, 외부세계에서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통한 북한 파워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 욕구³⁹⁾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핵과 인공위성’이 상징하는 최첨단 과학기술능력과 강력한 대외협상무기를 물려받았으나 국민들이 굶주리는 세계 최빈국의 오명도 함께 떠안게 되었다. 김정일 시대 체제안보의 ‘기회와 도전’ 요인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언론매체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런하기계집단, 함남의 불길 창조자들, 회춘발전소건설장과 만수대지구건설장의 건설자들’의 ‘혁명’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고무하고 있을 뿐⁴⁰⁾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밝혀 줄 ‘개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김정은도 여전히 ‘자주, 선군, 사회주의’ 고수에 체제생존을 맡기고 있다. 김정일의 통치구호였던 ‘강성대국’ 보다 약화된 ‘강성국가’와 ‘강성부흥의 전성기’, ‘최첨단돌파’ 등을 통치구호로 내세운 김정은의 철권통치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지식의 융합에 의한 고급기술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식경제시대’에서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6) 경제연구, 2011년 제4호.

37) “정론: 김정일동지의 혁명유산,” 『로동신문』, 2011년 12월 28일.

38) 최경희, “인공위성 쏘겠다는 북한…우리 대응책은?” 『중앙일보』, 2012년 1월 14일.

39) 정성장, “‘수습 지도자’인가, ‘준비된 지도자’인가,” 『시사저널』, 제1160호, 2012년 1월 11일.

40) “정론: 영원히 승리의 한길을 가리라,” 『민주조선』, 2012년 1월 2일.